



경북 포항, 충남 서산을 9월에 산업위기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할 계획 및 남해안 산업벨트 재건 프로젝트 추진 계획도 확정된 바 없음

<보도 내용>

- 2025.6.24. 헤럴드경제 “[단독] ‘석화’ 충남 서산·‘철강’ 경북 포항, 9월에 선제대응지역 지정 검토” 기사에서
- 헤럴드경제는 “해당 지자체 7월 신청 예정, 산업위기대응심의위 9월 지정 계획”, “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중추 도시인 충남 서산과 경북 포항을 이르면 9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남해안 산업벨트 재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현재까지 경북 포항시(철강), 충남 서산시(석유화학) 등을 산업위기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 확정된 바 없습니다.
- 향후 경북 포항(철강), 충남 서산(석유화학)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신청시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시도지사 신청 → 현지실사 등 →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 위원: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위원) → 산업부 장관 지정
- 아울러, 남해안 산업벨트 재건 프로젝트 추진도 확정된 바 없습니다.

담당 부서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	책임자	과 장	김봉석	(044-203-4420)
		담당자	주무관	염정아	(044-203-4428)